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년 5월 7일

스테반은 저의 영웅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35km 떨어진 베이트 자말이라는 곳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3년 동안 저희 가족은 그 무덤 근경에 살았습니다. 스테반은 굉장한 수준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는 우리가 목상하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본보기였습니다.

성품과 권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성령의 열매와 은사 가운데 행하도록 부르십니다(갈 5: 고전 12). 우리에게 윤리적 성품과 거룩한 권위 모두가 필요합니다. 스테반은 최초의 집사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행 6:3)”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 (행 6:8)”고 기록합니다.

겸손과 담대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도록 (미 6:8),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행 4:29)” 부르심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다 행하는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스테반은 공동체 가운데서 웨이터처럼 겸손히 식탁을 섬겼습니다 (행 6:2). 그러나 또한 큰 담대함으로 당시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행 7:51)”이라 쏘아붙였습니다.

십자가를 본받음

제자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분의 죽음에까지 예수아를 닮도록 인도됩니다(빌 3:10). 스테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을 뿐 아니라, 죽는 순간이 예수아와 닮아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자,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아,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행 7:59)." 이것은 예수아의 외치신 말씀과 같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시 31:5, 눅 23:46)."

스데반의 유언은 자신을 향해 죄 범한 이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행 7:60)." 이것을 보면 그가 예수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본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눅 23:34)."

주님의 영광을 닮음

우리는 예수아의 죽음을 본받을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도 닮도록 부르심 받았습시다(롬 8:17, 29-30). 저는 매일 예수아의 십자가와 영광 받으신 것을 묵상하려 합니다. 너무나 달라 상반돼 보이기까지 하는 두 이미지를 연결시키기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두 이미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영광).

돌에 맞기 직전, 그를 고소하던 자들은 그를 보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행 6:15)"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아께서 영화되신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계 1:16)." 스데반은 예수아의 십자가와 영광을 동시에 맞보아 인류사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히브리와 헬라

스데반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헬라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초대 히브리어를 하는 메시아닉 성도들과 헬라어를 하는 메시아닉 성도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행 6:1). 그는 두 가지 언어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두 가지 문화권에 능했던 것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주로 한 지역에서 히브리 문화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헬라적 유럽 문화를 따라 전파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적 뿌리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롬 11:15-33).

두 가지 세계관 (히브리와 헬라)은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합니다(행 20:27; 행 1:6, 8; 엡 2:11-3:6; 계 7:4, 9). 스데반은 헬라어를 했고, 그가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한 메시지 (행 7:2-33)는 복음을 유대 역사적 배경에서 전개한 가장 긴 설교였을 것입니다.

증거와 순교

"순교 martyr"라는 단어는 원어로 "증거, 간증,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간증이 되었고, 결국 그를 믿음으로 이끄는 데에 한 몫을 했습니다(행 22:20).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그 상급이 많은 부분 스데반에게 갈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고전 9:16).

우리는 언젠가 한 번 모두 죽습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에 달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이고, 무엇을 위해 삶을 바칠 것인가입니다. 때로 저는 “경력상의 목표 career goal”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으면 스테판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라 말합니다.

부활 때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 생에서 행한 바에 따라 좋고 나쁜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고후 5:10; 례 20:12).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부활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낮고 어떤 이들은 못할 것입니다(빌 3:11; 히 11:35; 례 20:4-6).

예수아께서 돌아오시기 전 목숨을 드리기까지 헌신하도록 택정된 사람들의 수가 있습니다(례 6:11). 우리는 마지막 숫자가 무엇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1 번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교황 베네딕토 16 세가 다음 주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의 방문은 카톨릭 교회와 유대 민족의 관계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가 이스라엘에 예수의 긍정적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동에 사는 대부분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카톨릭과 개신교,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차이를 모릅니다. 여기 사는 이들에게 교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기독교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본입니다. 그의 방문을 전국의 언론이 다룰 것이요, 유대인들이 예수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좋은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카톨릭 신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전역에서 자유-세속적 인본주의나 이슬람의 지하드를 통해 반유대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때에, 카톨릭 교회의 입장은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카톨릭 교회는 지하드와 테러에 맞서는 중요한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3. 오늘날 전세계에 10 억 가까이 되는 카톨릭 신자들 가운데 부흥과 회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